

제7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사실 선 공은 가짜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짜는 거서도 되질, 사기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공은 찾는데, 권기남처럼 열정과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힘겨운 삶이네요.
그래서 요즘 기성열은 열정과 권으로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권이 있어요. 예전에 몇 번 몰다 지쳐
남은 수확물을 내내 몰아본다네 하는지 말이에요. 단순한 것이지만 제에게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는지 같아요. 권기남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는데 항해자인 독립운동가 사기도 하지만, 제에게
열정, 권, 변화는 선물해준 선생님 같기도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에 힘써주세요,
제에게 열정, 권, 변화를 선물해주세요, '여자는 간첩' 라는 문장은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세 친구가 사기라고 불렀잖아요? 권기남과 다른 독립운동가 분들은 함께 살게
되고 싶어요. 권기남이 선물해준 열정, 권, 변화 보다는 당연히 못하네요.

<뜨거운 여름>

꽃처럼 활짝핀 뜨거운 꽃들

물처럼 소소한 뜨거운 물들

외로만든 귀도누는 뜨거운 여름

그들의 독립은 향한 뜨거운 여름

기억할게요!

권기남, 안녕히계세요. 정민

2021. 8. 12. (목)

- 대한민국에서 당시는 본받으려 노력하는 뜨거운 여름.

정민 손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